

# 한 가정 파탄 낸 '곡성 성폭행 무고사건' 눈·귀 달은 무성의한 수사·재판이 주범

### 경찰, 수차례 오락가락 진술 무시... 범행 지목 장소 CCTV 확인도 안해 검찰, 거짓 진술 의심 자료 흘려보내고 법원은 서류만으로 안일한 판단 범죄자로 예단하고 부실 수사... 억울한 옥살이·딸 유산에도 사과조차 없어

경찰과 검찰 등 공권력의 부실 수사가 무고한 시민을 순식간에 '성폭행범'으로 둔갑시켰다. 수사 기관은 "결백하다"는 피해자와 가족의 절박한 호소를 묵살했고, 법원은 느슨한 판단으로 진범들의 거짓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는데 실패했다.

특히 '악의적 거짓진술에 성폭행범 몰려' (광주일보 12월15일 6면) 사건은 경찰과 검찰, 법원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재발방지를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총체적 부실수사·사법·피해자 진술과 법정 증언, 법원 판결문 등을 살펴보면 경찰과 검찰의 허술한 수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는 비난이 나올 만하다.

지난 2016년 1월,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A양으로부터 성폭행범으로 몰린 50대 B씨는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수백번 결백과 의혹을 주장했지만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고 들어주지 않았다. 우선, B씨는 5차례에 걸쳐 A양 집과 모텔 등에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양과는 같은 빌라에 사는 것 외에는 사적 만남을 가진 적이 전혀 없었다. B씨와 그의 가족들은 그런 모형을 가보지도 않았으며 결백을 호소했다. 경찰과 검찰이 제시한 사건 장소, 해당 장소 인근 건물과 마트 CCTV, 모텔 CCTV 등을 확인해달라는 가족들 요청은 철저히 묵살됐다.

B씨가 범행 추정 일시, 직장으로 출퇴근한 기록 등을 확인해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과 검찰은 아예 범행 현장조차 찾지 않았다. 경찰이 사건 접수 뒤 3개월 이후 범행 현장인 모텔 CCTV 검색에 의미가 없다며 포기한 반면, 딸은 아버지 B씨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모텔을 찾아 119일간의 CCTV 영상 보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당시 영상을 확보했다면 아버지의 무죄 입증에 위한 단서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게 피해자 가족들 주장이다. 또한 B씨의 딸은 무죄 입증에 위해 마을 주민 200여 명을 직접 만나 아버지의 결백과 관련 증언 확인서를 받아냈으며, 그 과정에

유산의 고통까지 겪었다.

경찰과 검찰은 B씨가 A양 고모·고모부가 없는 틈을 타 A양 집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적시했지만 A양 집 열쇠는 고모와 고모부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확보했는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고 열쇠 복사를 한 데 따른 탐문조사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A양의 진술이 반복되는데도, 경찰은 꼼꼼히 진술의 허점을 살피는 커녕,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무시했고 '2015년 12월께,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자의 차량은 소형차, 내비게이션이 있다. 차량 종류나 로고 등은 모른다'는 A양 진술을 무시하고 B씨 소유 중대형차와 비슷한 중대형차 12대만 골라 A양에게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를 무고한 A양 등이 1년 전,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로 영명한 주민을 고소했다가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된 사건에 연관된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2심 재판부에서 밝혀졌다. 1년 전 사건을 맡았던 담당 경찰이 B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같은 부서 팀장이었다.

검찰도 비슷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기록을 세심히 살펴 허점을 찾아내지 못한 채 재판에 넘겼고, 1심에서 징역형을 받게 됐다. B씨가 범행 당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는 A양 진술을 토대로 8개 신용카드사에서 B

씨의 결제기록이 없다는 조사기록을 경찰에서 내놓고도 증거로 내놓지도, 의심하지도 않았다는 게 피해자들 주장이다.

이 때문에 '열 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 명의 무고한 범인을 만들지 말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진술에만 의존한 판단=사법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양의 피해회수, 범행장소를 바꾸는 등 진술을 번복하는데도,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이유를 들어 안일하게 판단했다.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살려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총체적 부실수사로 애꿎은 시민에게 누명을 씌워 옥살이를 시켜놓고도,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은 전남경찰과 검찰에 비난이 쏠리고 있다.

B씨는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잘못된 수사와 판단으로 우리 가족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불명예를 가지게 됐다"면서 "막강한 공권력으로 엄격히 수사 하지 않은 채, 진범을 놓치고 억울한 옥살이를 시킨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사과조차 없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세월호 특조위 설립·활동 방해 조운선·이병기 항소심서 무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운선 전 청와대 정부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조 전 수석,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 받았고,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이들 5명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 등이 청와대비서실 소속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벌리상 직권남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학배가 파견 명령을 받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나머지는 모두 법리상 직권남용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구분상 LIG그룹 회장 조세 포탈 혐의 기소

구분상(50) LIG그룹 회장과 구분업(48) 전 LIG건설 부사장이 주식 저가 매매로 1300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이 두 사람을 포함한 LIG그룹과 그 계열사의 전·현직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구 회장 등은 2015년 5월 당시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주당 1만481원)을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에 허위 평가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다른 주주에게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LIG넥스원의 유가증권신고는 2015년 8월에 실행됐기 때문에 6월에 있었던 LIG 주식 매매는 LIG넥스원 공모가 적용 대상이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인 대주주끼리 주식을 매매할 경우 주식 매매 후 3개월 이내에 유가증권신고 예정인 LIG 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해 1만2036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해야 함이었다.

그러나 구 회장 등은 주주 명부와 주권의 명의 개서(변경) 등 시점을 4월로 조작함으로써 주당 3876원 매매로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런 수법으로 구 회장 등은 증여세 919억원, 양도소득세 약 399억원, 증권거래세 10억원 등 총 132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연합뉴스

## 건물 창고에서 대마 재배 온라인 판매한 2명 구속

건물 창고에서 대마를 재배, 온라인으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32)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인천 계양구 소재 주거지 건물 창고에서 대마를 재배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판매해 75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마를 뜻하는 은어를 사용해 광고 글을 올린 뒤 12차례에 걸쳐 판매했다.

경찰은 통신·계좌 추적 등을 통해 밀경작이 의심되는 장소를 압수수색, 현장에서 밀경작 중인 대마 19주, 건조한 대마잎 410g, 대마 흡입기구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이 전문적인 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밀경작한 점 등으로 미루 공범과 여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 마약류 거래가 급증,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마약류를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마약류에 대한 온라인 광고 단속 및 수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그린로드 체험해요 17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용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아동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위한 '광주형 2020 그린로드 대장장' 행사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관계자들이 시야를 제약하는 안경(아동 시야각 안경)을 쓰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린로드는 보도 설치가 어려운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보행 폭 만큼의 길을 색칠하는 사업이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노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 만원)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대명 리조트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1개	2,530	1,780	리솜 리조트	제천 포레스트 덕산 스피러스 안면도 아일랜드 제주 퍼스픽	실버(24)방1	2,850	1,680
		스위트형 방2개	3,600	2,680			골드(28)방2	3,210	1,980
	로얄(34)방3	4,890	3,480	켄싱턴 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충주돈산, 수안보,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B(21)방1	1,980	980
한화 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천,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 (방2개)	2,480		1,680		스위트A(26)방2	2,120	1,280
		디럭스형 무기명 (방2개)	3,110		1,880		스위트B(31)방2	2,600	1,380
							로얄(35)방3	3,200	2,20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